

# 신한銀 퇴직연금 압도적 수익률... '원금非보장' 공략 주효

(DC형 1.45%·IRP형 2.87%)

DC형 3분기 수익률 업계 1위  
IRP 수익률, 은행권 평균비 3% ↑  
비대면 관리 서비스 업그레이드

신한은행이 퇴직연금 수익률 부문에서 선두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원금보장 상품이 선호되는 은행권 퇴직연금 시장에서 원리금비보장 상품을 적극 발굴해 수익률 높이기 위해 나서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1일 은행연합회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의 3분기 원리금비보장상품 수익률은 1.45%로 1, 2분기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다.

〈3분기 은행권 DC IRP 수익률〉

DC	비보장	IRP	비보장
신한	1.45	신한	2.87
제주	-0.07	하나	1.23
국민	-0.23	우리	0.47
우리	-0.45	제주	0.16
하나	-0.49	산업	-0.4
경남	-0.77	국민	-0.4
산업	-0.86	경남	-0.53
기업	-1.03	기업	-0.71
광주	-1.24	농협	-0.89
대구	-1.44	부산	-1.39
농협	-1.9	대구	-1.64
부산	-2.55	광주	-2.21

(자료=은행연합회)

개인형퇴직연금(IRP) 역시 3분기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수익률이 2.87%로

가장 높았다. 은행권 평균 대비 3%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IRP 원리금비보장상품 수익률은 IRP 적립금을 1000억원 이상 보유 중인 전체 업권 사업자 중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은 증권업권에 비해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정기예금 중심의 자산구조는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 특성에 적합하지 않다”며 “차별화된 퇴직연금 전용 상품을 발굴해 고객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솔리치를 통한 디지털자산관리 등으로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IRP 원리금비보장상품 비중은 32%이다. 은행 전체 평균이

23%인 점을 감안하면 9%나 높다.

신한은행은 고객들의 자산 다변화를 위해 만기매칭형펀드와 공모형태의 구조화펀드 등 새로운 퇴직연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만기매칭형펀드는 투자자산의 만기를 정해놓고, 해당 만기에 근접한 채권 등에 투자한다. 금리 변동 위험은 줄이고, 시장금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비대면을 통한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도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다.

신한은행 ‘솔 리치(SOL Rich) 퇴직연금’에 이어 지난 6월에는 ‘내 모든 연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단순 퇴직연금에 국한하지 않고, 고객의 모든 연금자산을 대상으로 통합 연금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 관리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 최초로 가입자관리 전담조직인 퇴직연금전문센터를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고객관리 범위도 다변화 중이다.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도 퇴직연금 경쟁력 높이기 위해 나선 상황이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퇴직연금사업 부문을 출범시켜 은행, 증권, 생명의 퇴직연금 사업을 하나의 매트릭스 조직형태인 부문으로 통합하고, 그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또 금융권에서는 가장 먼저 IRP 손실 고객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포함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공제한계까진 체크카드... 넘을시 신용카드

### 금융꿀팁 200선

신용·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

# 직장인 김승기(35세·가명)씨는 그동안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세무사 친구로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있어 적정 비율이 있다는 구체적인 조언을 들은 후부터는 본인의 급여액과 예상 카드 사용금액을 감안해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을 안내했다.

우선 자신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이다.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의 25%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인의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인 25%를 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공제한도액이 300만원이다. 이미 최대공제한도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

적이다.

반면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소비를 하고 최대 공제한도액을 넘지 않았다면 최대 공제한도액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현재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에 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신용카드 결제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중교통 요금(소득공제율 40%), 전통신장 이용액(40%), 도서·공연비(30%)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씩 최대 6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 항목은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전에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신차 구입비용 ▲통신비 ▲세금·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 ▲해외 결제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C부부와 D부부가 동일한 연봉을 받고 카드 사용금액도 2600만원으로 동일하다면 사용방법에 따라 C부부는 90만원씩 180만원, D부부는 28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D부부는 C부부보다 약 16만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희주 기자 hj80@)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

(단위:만원)

구분	C부부			D부부		
	남편	아내	계	남편	아내	계
총급여액	4,000	4,000	8,000	4,000	4,000	8,000
신용카드*	900	900	1,800	1,500	300	1,800
체크카드*	400	400	800	700	100	800
소득공제액**	90	90	180	285	-	285
절세액***	13.5	13.5	27	42.8	-	42.8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

\*\*최저사용금액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곱하여 계산(추가공제는 비교편의상 고려하지 않음)

\*\*\*절세액은 소득공제액에 한계세율 15%를 곱하여 계산(1,200만원~4,600만원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15%세율 적용)

(자료=금융감독원)

## 저축은행 퇴직연금... 1년만에 판매 5조 돌파

잔액 규모 1위는 페퍼저축은행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혜택 장점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판매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1년 약 5조원의 예금잔액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약 1년간 저축은행업계가 판매해온 퇴직연금 상품의 총 예금잔액은 5억원을 돌파했다. 현재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저축은행은 총 25개다.

앞서 금융감독은 지난해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저축은행도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11월부터 퇴직연금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해 왔다.

잔액 규모 1위는 페퍼저축은행이다.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저축은행중앙회가 집계한 잔액 규모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예금잔액은 총 7318억원이다. 당시 저축은행 업계가 취급하는 4조6591억원 가운데 약 15%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페퍼저축은행은 저축은행업계 자산규모 순위로는 약 4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연 1.25%)으로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위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퇴직연금 부분에서는 1위인 SBI저축은행의 규모를 능가한다.

현재 저축은행별 퇴직연금 잔액 규모는 페퍼저축은행이 약 9000억원,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이 약 7000억원씩 각각 기록중이며 유진저축은행이 약 3000억원의 퇴직연금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이 퇴직연금을 운용한 지 약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급성장세를 보였다는 평가다.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고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더 높아 빠른 시일내로 성장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

중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 중후반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퇴직연금은 약 2%대의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기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저축은행입장에서는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외부 금융사가 위탁 운용하기 때문에 예금보험료를 따로 부담하지도 않고 영업망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으로 예금을 조달한 저축은행들은 향후 대출영업도 활발하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신용회복위원회, 챗봇·스마트 대출 실시

새로미 스마트 창구 도입

신용회복위원회는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종이 없는 고객창구인 '새로미 스마트 창구' 시스템도 도입한다.

우선 신복위는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복위 지원제도인 채무조정, 대출신청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앱을 내놓는다. 새로 개편된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는 챗봇과 스마트 대출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는 종이 없는 고객창구인 스마트 창구가 전면 도입된다.

24시간 비대면으로 상담을 할 수 있

는 챗봇과 비대면 소액대출인 스마트대출 등의 시행으로 고객들은 신복위의 업무종료 시간 이후에도 비대면 채무상담과 대출신청이 가능해진다.

우선 챗봇을 통해 시간, 장소 제약없이 실시간 채무상담을 받을 수 있고 스크래핑 등 핀테크 기술을 활용, 모바일 기기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고객서비스가 향상되고 이용이 편리해진다.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신청 당일 자동심사 후 대출금이 지급되며 대출 이용자에게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신용교육 영상도 제공한다.

종이없는창구인 스마트 창구로 인해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의 고객들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별도의 신청서

작성없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평균 10분의 대기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복위는 설명했다.

또 모든 서류의 디지털(전자문서)화로 고객은 방문 시마다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신청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10분~20분)이 단축됨으로써 보다 상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후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아 고객들과 직접 상담을 하면서 고객의 불편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디지털 혁신을 통한 고객 서비스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디지털 대고객 서비스 시행에 나선다.

(김유진 기자)